

KB 지식 비타민

트럼프도 관심 갖는 북한 관광

- 트럼프, 북한의 해안가에 관심을 갖다
-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 관광산업에 대한 북한당국의 딜레마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요약 >

□ 트럼프, 북한의 해안가에 관심을 갖다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식 직후 북한을 ‘Nuclear Power(핵보유 세력)’로 지칭함과 동시에 해안가의 콘도 역량을 언급해 북한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냄
-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북한의 해안가와 콘도 역량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힘
- 북한당국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외국인의 ‘라선’ 관광을 허용.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한 지 약 5년 만의 조치로, 2024년 3월에는 러시아인에 한해 ‘평양’과 ‘라선’ 관광을 허용한 바 있음

□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당국은 ‘관광’을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적 비생산 문화활동’이라 비판.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며 관광 목적의 외국인 방북을 일부 허용했지만, 실질적인 관광 산업화의 계기는 1998년 이후 시작된 남북 간 금강산 관광교류로 시작됨
- 남북 간 금강산 관광교류는 2008년 남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직후 중단됨. 2010년대 이후 북한당국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수입을 늘려 나갔으나,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로 모든 관광 일정을 취소
-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를 우회하고자 적극적으로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중임. 특히 해안가에 인접한 도시인 ‘라선’과 ‘원산’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

□ 관광산업에 대한 북한당국의 딜레마

- 북한당국은 2016년 이후 중국인과 일부 유럽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 수입이 일정 수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화는 벌외 정보 유출입은 통제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
- 자연경관 중심의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은 북한주민의 일상 체험이나 그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호기심을 채우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미국의 북한 입국 금지조치 또한 북한의 관광산업 발전을 제약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트럼프식 ‘거래 외교’는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져 관광산업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전세계에 대한 ‘관세 무기화’ 정책과 미-중관계의 갈등 확산이 경제 불확실성을 높여 전반적으로 해외 관광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연구자의 개인 의견으로 KB경영연구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트럼프, 북한의 해안가에 관심 갖다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1.20일) 직후 북한을 ‘Nuclear Power(핵보유 세력)’라고 지칭하는 동시에 해안가의 콘도 역량¹을 언급해 북한의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냄

○ 당시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Nuclear Power’ 발언이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북핵과 함께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이 발언에도 주목할 필요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2019년 미북정상회담과 2024년 8월 대선 유세 기간 중에도 북한 해안가의 콘도 역량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고 알려짐
 - 이는 새로운 미북정상회담 추진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내포하는 발언으로,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 백악관 기자 브리핑에서 “언젠가는 그와 함께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 중임을 밝힘²
- 북한당국은 해안가에 인접한 관광휴양지 ‘라선’과 ‘원산’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
 - 라선은 북·중·러 3국 접경 지역이자 유일한 부동항이 있는 도시로 1990년대부터 유엔 개발계획(UNDP) 등 국제사회로부터 관광휴양지 개발 후보지로 관심을 받아옴
 - 원산은 김정은 위원장 출생지로 이미 관광지로 조성된 금강산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개발이 집중됨

[그림 1] 북·중·러 삼각 접경 해안도시 ‘라선’



자료 : KB경영연구소

[그림 2] 원산-금강산 종합개발계획



자료 : 《매일경제》

¹ 《문화일보》, 2025년 1월 29일, “트럼프 “김정은은 이제 ‘뉴클리어 파워’...해안 콘도 역량 많아” 北 관광 개발 눈독”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콘도 역량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북 간의 협의로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경우 북한의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음

² *New York Times*, Mar. 31, 2025, “Trump Administration Highlights”; 《이투데이》, 2025년 4월 1일,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하고 있다...북한은 큰 핵 국가””



- 북한당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듯 외국인의 ‘라선’ 관광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해외의 북한전문여행사를 통해 밝힘³
 - 김정은 정권은 2013년부터 여러 지역을 관광지를 개발하며 경제역량을 총동원해 왔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하며 약 5년 간 관광사업을 전면 중단
 - 2024년 3월 군사적 밀착 행보를 보여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인에게만 ‘라선’ 관광을 허용한 바 있는데, 2025년 초 허용 대상 국가를 확대⁴
 -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관광지 개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등 분쟁지역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미국 새 정부의 북한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

2.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 북한당국은 ‘관광’을 자본주의 문화라고 비판해왔으나 경제난 이후 외화수입원으로 주목하기 시작

-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당국은 ‘관광’을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적 비생산 문화활동’이라 비판하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북한주민들은 ‘이동의 통제’로 휴양 목적의 관광이 사실상 어려움⁵
 - 경제난으로 외화수입이 절실해진 1984년, 당시 실세인 김정일의 주도로 제정된 《합영법》 공포 이후 외국인 대상 관광사업을 외화수입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대내외 여러 여건이 좋지 않아 한계에 직면

[표 1]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구분	김일성 정권 시기	김정일 정권 시기		김정은 정권 이후		
	1948.9~1994.7	1994.7~1984	1984~2011	2012~2019	2020.1~2024.10	2024.10~
북한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 - 출장, 관혼상제, 단체견학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허용 - 마식령 스키장 등 유료 관광일 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국내외 이동 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허용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허용 -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일부 허용 - 1998년~2008년 금강산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 허용 - 외화수입 증대 위한 관광산업의 정책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허용 - 라선, 평양 중심으로 일부 허용

자료 : 박은진(2020), 연구자 수정·보완

³ 《시사주간》, 2025년 2월 15일, “北 전문 여행사, “20일 라선 공식개방”...4박 5일 105만원”

⁴ 한국 국적자는 북한의 신변안전보장 확인을 전제로 통일부의 방북승인을 득해야 하므로 현재 북한 입경이 어려움. 미국 국적자의 경우, 2015년 말 관광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대학생 오토 웬비어의 사망 사건 이후 미국 정부가 2017년 1월부터 방북을 금지

⁵ 박은진, 2018, “북한의 관광산업 변화와 특징”, 『KDB북한개발』 2018년 여름호(통권15호), 서울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165~169쪽



- 실질적인 관광 산업화의 계기는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이후 시작된 남북 간 금강산 관광교류라고 볼 수 있음
 - 금강산 관광교류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처음으로 상호 간 체제를 이해하는 전제 아래, 경제협력을 통한 이익 창출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금강산 관광교류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직후 중단됨
 - 북한은 이후에도 금강산 관광교류를 재개하길 희망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대남도발 등으로 국내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고 대량현금(Bulk Cash) 송금 금지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관광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워짐

[표 2] 1998년~2008년 관광 목적의 남한주민 방북 인원

구분	(단위 : 명)								
	'98~'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금강산관광	371,637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개성관광	-	-	-	-	-	1,484	-	7,427	103,122
평양관광	-	-	-	1,019	-	1,280	-	-	-

주 : 평양 및 개성 관광은 비정기적으로 시행

자료 : 통일부

■ 북한당국은 북중무역 확대와 함께 중국인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관광 특구에 외국인 합영·합작 투자를 유치하며 관광 및 투자로 인한 외화 수입 증대를 추진

- 김정은 정권은 평양·라선·금강산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핵포기 압박에 대응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정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북한체제에 관심이 많다는 등의 선전도 구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는 외화 수입을 늘리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우회하고자 함

[표 3] 2006년~2018년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수

연도	(단위 : 만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북한방문 외국인수	4.6	5.1	2.6	9.6	13.1	19.4	23.7	20.6	10.0	10.0	60.0	확인불가	1200 ^{주2}

주1 : 북한당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중국측 관광통계로 확인한 추정치로, 중국 육로 국경을 통해 북한을 관광·사업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수. 정확도는 낮을 수 있음

주2 : 북한측은 중신화통신 인터뷰를 통해 2018년 당시 북한 방문객이 20만 명이라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관광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한 중국인 등의 외국인 수치를 의미할 것으로 추정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언론보도 종합, 박은진(2020), 김한규(2022)

⁶ 북한당국이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투자 방식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차이가 있음. ‘합영’ 방식은 투자 비중만큼 기업의 운영권을 인정받고 리스크를 부담. ‘합작’ 방식은 투자는 허용하되 기업의 운영권이 인정되지 않고 리스크 부담도 없음. 다만, ‘합영’ 방식이라 하더라도 북한측과 운영권 보장을 두고 투자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



○ 김정은 정권은 2013년 이후 원산·라선 등 주요 관광지에 호텔·스키장·놀이공원을 적극적으로 건설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영·합작 방식의 관광 인프라 투자를 유인⁷

- 소비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주민들에게도 관광 인프라 이용을 독려하여 일부 특권계층, 돈주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수영장, 스키장을 유료로 이용하기 시작
- 이들이 쌓아둔 유희화폐⁸가 자연스럽게 소비되면서 북한당국이 관리하는 재정 회복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그림 3] 평양 문수물놀이장(2013년 10월 리모델링)



자료 : 《조선의 오늘》

[그림 4] 원산 마식령 스키장(2013년 12월 개장)



자료 :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당국은 중앙(평양) 주도로 경제개발전략과 정책 등을 집행해 왔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중앙과 지방 인민위원회 중심으로 분권화되어 각각의 경제개발구를 건설

- 2017년 말 기준 29개의 경제개발구 중 11개가 관광개발구로 지정될 정도로 관광산업 활성화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부상

[그림 5]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



자료 : 박은진(2018)

[표 4] 북한의 관광특구 및 관광개발구 현황

	도	시·군·구	개발구	주요사업
피연방	양강	삼지연군	무봉관광개발구	관광
	강원	원산시	원산-금강산관광특구	관광
	함북	명천군	칠보산관광개발구	관광
	평북	삭주군	청수관광개발구	관광
지방도	함북	운성군	운성성관광개발구	관광
	황북	신평군	신평관광개발구	관광
	평북	신의주시	압록강경제개발구	관광휴양, 농업
	평남	속천군	속천농업개발구	관광, 농업, 무역
	자강	만포시	만포경제개발구	관광휴양, 농업
	강원	원산시	현동공업개발구	관광기념품, 정보산업, 경공업
	양강	해산시	해산경제개발구	관광, 수출가공, 농업, 무역

자료 : 박은진(2018), 연구자 수정

⁷ 라선 지역에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는 중국인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종전에는 라선시 해안가의 토지임대금액 전액을 납입해야 투자 권리 증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경에는 계약금을 10%~30%만 지불해도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하는 등 대북제재 우회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활용

⁸ 북한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은행 예금을 지급받지 못해 돈을 은행보다는 개인적으로 보관하는데, 이를 '유희화폐'라고 함

■ 북한의 관광정책은 금융부문에 유익한 변화를 이끌어 냄

○ 관광의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결제 인프라를 북한에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

- 외국인이 평양이나 라선에서 소비하고 싶어도 대북제재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워 대부분 북한원화나 외화를 활용한 현금 결제가 불가피
-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말부터 재정은행 당국자들에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결제단말기(POS) 인프라 구축을 주문하는 등 《금융정보화》 정책을 추진
 - 이후 일부 상업은행과 호텔에 ATM기가 설치되고 외화 상점에 POS기가 구비되는 등 금융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력부족으로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알려짐
 - 최근 유튜브에 게재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북한 여행기에는 관광가이드가 평양이나 라선에서 북한 전자결제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외국인에게 현지 은행에서 외화 환전과 전자결제카드 계좌 개설 및 카드 충전을 유도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함⁹

[그림 6] 평양 류경상업은행 ATM



자료 : 《New York Times》

[그림 7] 평양 대성백화점에서 북한주민의 QR코드 결제 장면



자료 : 《연합뉴스》

⁹ 시드니한량의 세계여행, “북한여행 2025 EP1”, <https://youtu.be/YmjLVmrA3cc?si=D5EOyG1oqLLmeUS>, 검색일 : 2025년 3월 13일 ; The German Travel Guy, “North Korean Bank Account”, <https://youtube.com/shorts/GDCzuJHbKuo?si=dR-toozu86HKy9ks>, 검색일 : 2025년 3월 14일

3. 관광산업에 대한 북한당국의 딜레마

■ 북한당국은 외화수입 증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개방과 통제의 딜레마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은 한계에 직면¹⁰

- 북한 사회의 특성상 통제와 제약이 많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자유관광 시간을 중시하고, 북한주민의 일상 체험이나 그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는 낮을 수 있음
 - 북한 가이드 동행이 필수이고, 등산·해변·해수욕 등 자연경관 체험 중심의 패키지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관광상품 특성상 북한주민의 일상 체험이나 그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호기심을 채우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북한당국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자 일상 체험, 중학교 영어수업 클래스 참여 프로그램 등을 관광 일정에 포함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통제와 제약이 많아 북한 관광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부족
 - 2024년 3월부터 평양·라선 관광이 허용된 러시아인들조차도 일정 통제에 불만을 느끼며 점차 관광객수 급감¹¹

■ 북한 가이드의 관광 일정 통제에도 외부 정보 유입 및 내부 동향 유출 차단에는 한계 존재

- 북한당국은 외국인이 주민에게 한국·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나 북한 내부 동향을 질문하여 내부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거나, 외부에 내부 동향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음
 - 가이드가 통제하더라도 한 두 사람이 2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통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과 주민의 대화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려움
 - 최근 3월 3일~6일 라선을 다녀온 외국인 여행 인플루언서들이 북한주민에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북한 휴대전화 성능과 앱 기능 등을 질문한 인터뷰들이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바 있음¹²
 - 이후 2020년 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한 지 약 5년 만에 재개된 라선 관광 프로그램이 3주 만에 중단된 것은 여전히 북한당국이 정보 유출입에 민감하다는 방증¹³

¹⁰ 황주희·나용우, 2025, “북한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통제의 딜레마”, 『Online Series』 Co 25-10, 서울 : 통일연구원, 7~8쪽

¹¹ 《RFA》, 2024년 3월 15일, “러시아인 북 단체관광 재개 한달만에 관심 급감”

¹² 《시사주간》, 2025년 2월 27일, “北 가이드 “사람들 러시아로 파견되고 있다” 파병 시인”; 《RFA》, 2025년 3월 19일, “북한에도 ‘넷플릭스’와 ‘데이팅 앱’이 있다?”

¹³ 《한국경제》, 2025년 3월 17일, “유튜버들 몰렸는데...北 관광 재개 3주 만에 중단한 이유는”; 《RFA》, 2025년 3월 18일, “북, 외국인 관광 재개 위해 ‘도시 미화’ 총력”



■ 미국은 북한의 관광수입 증대가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 핵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

- 북한의 관광 수입 규모는 통계나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분석이 어렵지만 코로나19 이전까지 벌어들이던 외화수입은 북한주민의 생계 지원보다 당국의 관리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임
 - 김한규(2022)는 북한당국이 북한전문 여행사에 고지한 외국인 관광요금표를 근거로 2018년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이 120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관광 수입이 최소 8억 1,900만 위안 (약 1,588억 원, 1억 1,270만 달러)일 것으로 추정¹⁴
 - 한국국방연구원과 美랜던연구소가 추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대 발사 비용이 2천만~3천만 달러임을 감안할 때¹⁵, 최소 3대 이상의 미사일 발사 비용을 관광수입으로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평양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억류된 후 사망한 오토 워 비어 사건 이후 안전을 우려해 2017년 1월부터 자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2019년 8월부터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미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여 외국인의 북한 방문 수요를 간접적으로 차단

■ 대북제재와 내부 통제로 인한 북한의 결제 인프라의 미비는 외화 현금의 직접 결제로 이어져 결국 북한당국이 우려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지난 3월 초 라선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 인플루언서들은 라선 황금의삼각주은행에 들러 《선봉》 카드에 일부 금액을 충전했지만 현지 상점에서는 결제할 수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고 밝힘¹⁶
 - 한 라선여행기 유튜브 영상에서는 북한전문여행사 가이드가 사전 안내 시간에 관광객들에게 라선에서도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안내하는가 하면, 북한의 현지 상점 직원들도 관광객들에게 위안화로 기념품 가격을 알려주는 등¹⁷ 위안화 현금 결제가 선호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

¹⁴ 김한규, 2022, “2010년대 북중 관광교류 추이와 코로나19 이후 주요 변화 전망,” 『KDB북한개발』 2022년 여름호(통권 26호), 서울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53~54쪽

¹⁵ 《문화일보》, 2022년 10월17일, “트럼프 “북한, 20일간 미사일 15발 발사에 380억... 전체 주민 6일치 식량 비용”

¹⁶ 《서울신문》, 2025년 3월 1일, ““맥주는 OK, 사진은 NO”...108만원 내고 본 북한의 민낯”; 《시사주간》, 2025년 3월 17일, “[호주교포 라선 여행기] ① “사진 찍지 말라고 해도 다 찍네”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소재한 ‘황금의삼각주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결제카드. 중국식 직불카드를 모델로 카드번호가 곧 계좌번호임. 카드에 충전하는 행위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행위와 동일. 중국 위안화만을 입금(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계좌) 개설비 25위안이 별도로 발생

¹⁷ 시드니한량외의 세계여행, “북한여행 2025 EP1”, <https://youtu.be/YmjLVmrA3cc?si=D5EOyG1oqLLmeUS>, 검색일 : 2025년 3월 13일 ; The German Travel Guy, “North Korean Bank Account”, <https://youtube.com/shorts/GDCzuJHbKuo?si=dR-too zu86HKy9ks>, 검색일 : 2025년 3월 14일

[그림 8] 라선 황금의삼각주은행 전자결제카드 《선봉》



자료 : 《연합뉴스》

[그림 9] 라선 황금의삼각주은행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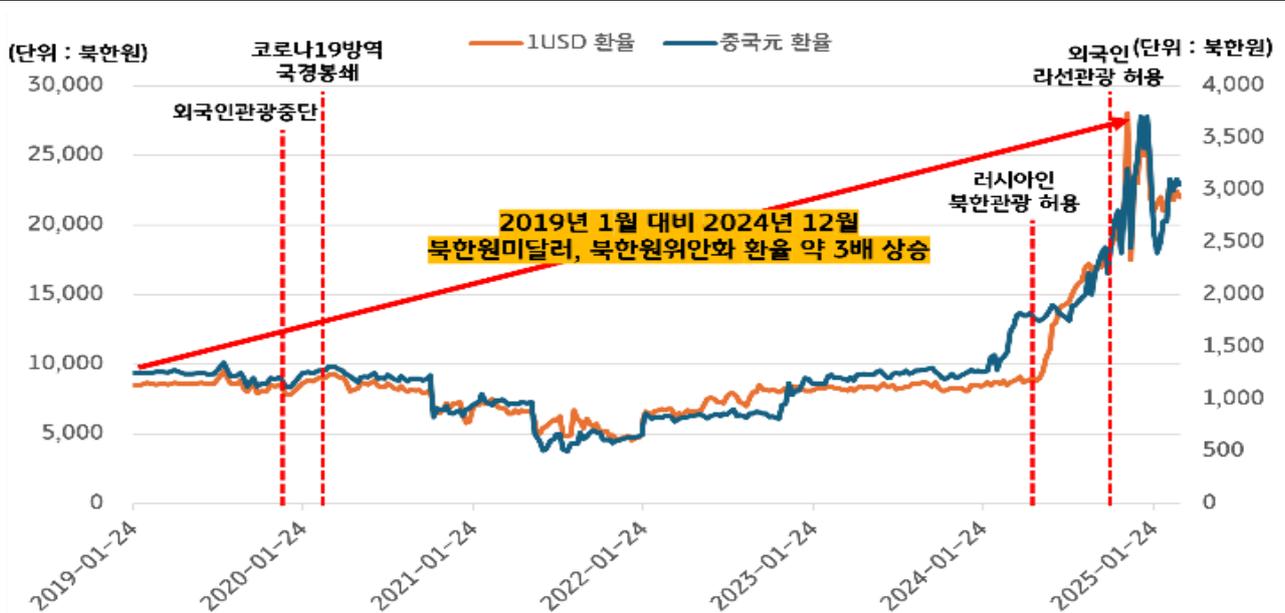


자료 : 《시사주간》

○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북한 장마당 환율의 상승세 역시 달러라이제이션을 더욱 촉진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일시적으로 북한원화가 달러나 위안화보다 가치가 상승한 기간도 있었으나, 2024년 12월 기준 달러·위안화 환율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3배 상승¹⁸
 -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는 북한당국의 새로운 화폐개혁설이나 러북 군사밀착에도 불구하고 물물교환 형태로 무역이 진행되어 외화유입이 부족한 점 등이 거론됨
 - 2024년 하반기 이후 외국인 대상 관광 교류 재개나 북중무역 정상화 등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외화유입에 대한 기대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도 환율 급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0] 코로나19 전후 북한원달러, 북한원위안 환율 추이



자료 :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 북한물가 자료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¹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의 환율은 1달러 = 27,000북한원, 1원 = 3,700북한원. 코로나19 이전의 환율 (2019년 1월 기준) 1달러 = 8,500북한원, 1위안 = 1,250북한원 대비 약 3배 상승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북한당국은 관광산업이 ‘대북제재’를 우회하여 합법적으로 외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일부 중국인들과 구 동구권 국적자들에게 북한관광은 자신들의 유년시기를 추억하는 ‘홍색여행(紅色旅)'¹⁹ 혹은 ‘노스텔지어(추억) 여행’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은 바 있음

- 북한은 이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자연경관, 북한주민 일상 체험 관련한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임
- 외국인, 특히, 유럽인의 북한 방문 비용에는 중국 복수비자 수수료(유럽 쉥겐국가 기준 1인당 111유로)가 포함되는데, 최근 중국이 38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무비자 정책’은 이러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로 북한당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외교’는 북한 관광산업에 기회 요인이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될 것임

○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해안가의 콘도 역량을 언급하면서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점은 북한에 기회 요인

-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외교’를 통해 북한과 미국이 핵동결·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거래한다면 북한은 보다 안정적으로 외국인 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음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 정책이 전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전반적으로 해외 관광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북한에 제약 요인
 - 러우전쟁 여파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유럽인들이 지출 축소에 나설 경우 북한을 방문하는 유럽 관광객은 극소수에 불과하게 될 것임

■ 북한당국은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관광 개방’을 통해 대외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그동안 중단되었던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을 양국정부가 허용할 경우, 북한당국은 안정적인 관광수입과 함께 비핵화와 관광투자를 거래하려는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과 5월 러북정상회담 가능성에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으며 이 때 북한당국이 활용할 외교적 카드로 ‘관광 개방’이 주목되고 있음
- 팬데믹 이전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북한 외국인 관광객의 약 80%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 북중관계 교착국면으로 양국이 중국인의 북한 관광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연구위원 손광수(interkorea@kbfkg.com) ☎02)2073-5725>

¹⁹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지를 답사하는 여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국인들은 북한 여행시에도 ‘홍색여행’ 관점에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현장이나 사회주의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을 선호

[참고문헌]

① 학술논문

- 강채연, 2019,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한국동북아 논총』 제25집 제2호(통권 95호), 서울 : 한국동북아학회.
- 박은진, 2018, “북한의 관광산업 변화와 특징”, 『KDB북한개발』 2018년 여름호(통권 15호), 서울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이완구 외, 2018, “북한과 노스텔지어 관광 : 친숙성-신기성 연속체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반증”, 『관광연구논총』 제30권 제4호(통권 7호), 서울 :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 이해정 · 강성현, 2020, “문헌으로 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 『국가전략』 2020년 가을호(제26권 3호), 성남 : 세종연구소.
- 이해정, 2024,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향후 전망”, 『KDB북한개발』 2024년 여름호(통권 32호).

② 연구기관 보고서

- 김한규, 2022, “2010년대 북중 관광교류 추이와 코로나19 이후 주요 변화 전망”, 『KDB북한개발』 2022년 여름호(통권 26호), 서울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박은진, 2019,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 및 전망”, 『북한포커스』, Weekly DKB Report, 서울 : KDB산업은행.
- 이상근, 2023,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정책 재추진 전망과 파급영향”, 『INSS전략보고』 No,231,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이상근, 2024, “북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의미와 한계”, 『이슈브리프』 578호(2024,07,25),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황주희 · 나용우, 2025, “북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통제의 딜레마”, 『Online Series』 Co25-10, 서울 : 통일연구원.

③ 북한원전

- 조중개발 ·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 2018, 『라선경제무역지대 투자소개』, 라선 : 조중개발 ·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관리위원회.

④ 기타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http://www.visaforchina.cn>
- 시드니한량의 세계여행, “북한여행 2025 EP1”, <https://youtu.be/YmjLVmrA3cc?si=D5EOyG1oqLLmeUS>
- The German Travel Guy, “North Korean Bank Account”, <https://youtube.com/shorts/GDCzuJHbKuo?si=dR-tooZu86Hky9ks>.